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0. 31.(월) 18:00	배포 일시	2022. 10. 29.(토)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태우 (044-203-5330)
		담당자	팀 장 김동환 (044-203-5339)
			사무관 김성은 (044-203-5336)
			사무관 전성철 (044-203-5333)

※ 동 보도참고자료는 한 산업부, 폴 국유재산부, 한수원, ZE PAK, PGE 공동 보도자료입니다.

한-폴 원전협력을 위해 한 산업부 - 폴 국유재산부 간 MOU 체결 및 기업 (한수원 - ZE PAK - PGE) LOI 체결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폴란드 국유재산부, 한국수력원자력, 폴란드 ZE PAK, PGE는 원전 개발계획 수립 관련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와 정부부처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는 한국수력원자력, 폴란드 민간발전사 ZE PAK,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 PGE 등 양국 3개 기업 CEO가 체결하였으며, 3개社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MOU는 산업부 장관과 폴란드 국유재산부 장관이 체결하였으며, 기업이 추진하는 퐁트누프 프로젝트 원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국수력원자력, ZE PAK 및 PGE 3社는 폴란드에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건설(이하 프로젝트)에 대해 협력방안을 평가(assessment)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폴란드 에너지 시스템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폴란드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폴란드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며, 무엇보다 향후 60년간 폴란드 가정에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3社간 협력은 「폴란드 에너지정책 2040 (PEP 2040)」에 포함된 기존 폴란드 정부주도의 원전계획을 보완(supplement)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 ZE PAK과 PGE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효과적인 한국 원전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40년 동안 원전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세계 3위의 원전 운영사이며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중 하나인 UAE 바라카 원전을 계획된 예산과 공기(On Time, On Budget)에 맞춰 완공하였습니다. 이 발전소는 1,400MW 용량의 4개 호기로 구성되어 총 5,600MW 용량이며, 4기 모두 준공될 경우, UAE 전력 수요의 4분의 1 이상을 저렴하고 깨끗하며 안정적인 에너지로 공급할 것입니다.

□ 3社는 한국의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3社는 퐁트누프 부지에 대한 지질공학, 내진, 환경조건 분석을 수행하고, 상호간에 제안된 파이낸싱 모델에 따라 사전 작업 - 건설 - 운영 단계별 예산을 추산하며, 동 프로젝트 이행시 미치는 영향을 정의(define)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이정표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3社는 금년 말까지 상기 내용이 포함된 신규 원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 야체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은 “폴란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원전은 폴란드 상황, 특히 현재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ZE PAK과 PGE의 계획은 폴란드와 폴란드인들의 전략적 목표인 저렴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폴란드 정부가 2021년에 채택한 「폴란드 에너지 정책 2040(PEP2040)」에 따르면 퐁트누프는 폴란드 신규원전의 잠정 부지 중 하나입니다. 퐁트누프 신규원전 건설은 폴란드 원자력에너지 프로그램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유재산부는 ZE PAK과 PGE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상을 시작했고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확실히 양국 간의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폴란드가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선 동 프로젝트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의지와 정책이 뒷받침된 성과로 평가됩니다. 한국 입장에서 금번 프로젝트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에 원전 노형 수출의 물꼬를 텄고, APR1400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경우,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전 업계에 일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원전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프로젝트는 한-폴간 산업·경제 분야까지도 협력의 수준과 깊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번 원전 협력을 토대로 방산, 배터리,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번 MOU와 LOI 체결을 계기로 폴란드와 긴밀히 협력하게 되어 상호 Win-Win할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한국수력원자력은 50년 이상 원전 건설과 40년의 이상의 운영 경험을 보유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입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원전 사업에 있어 비교할 수 없는 기술력과 역량을 보유한 신뢰할 수 있는 원전 공급사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UAE와 한국에 6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APR1400 원자로는 3+세대 노형으로 가장 진보된 안전설비 및 보안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ZE PAK이 한국수력원자력에 협력을 요청했다는 것은 세계 원전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한국과 폴란드 간의 프로젝트는 향후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지그문트 솔로쉬(Zygmunt Solorz) ZE PAK 회장은 “ZE PAK의 목표는 폴란드인들에게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이 그 에너지원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ZE PAK이 소유한 퐁트누프 부지는 신규원전 건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ZE PAK은 신규원전 프로젝트 개발계획을 수립하자는 의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ZE PAK은 원전 기술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인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 최대 전력회사인 PGE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필요한 인프라, 경험 및 현지 엔지니어들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ZE PAK은 점차적으로 갈탄 기반의 에너지원에서 무공해

에너지원으로의 변화를 추진하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훌륭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퐁트누프 지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전에 대한 투자는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폴란드인들을 위한 기회입니다. 원전은 폴란드 기업과 가정을 위한 안정적이고 깨끗하며 저렴한 에너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수많은 폴란드 잠재 공급사들을 위한 개발 동력이며 수천명의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이자 매우 진보된 기술과 지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는 또한 폴란드 경제에 대한 강력한 투자이자 국가와 지역에 상당한 세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 보이치에흐 동브로프스키(Wojciech Dąbrowski) PGE 사장은 "폴란드는 미래에 석탄 기반의 재래식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원자력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재생에너지원(RES)에 대한 투자와 함께 우리 에너지 안보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발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화석 연료 시장의 제약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폴란드 최대 에너지 기업인 PGE는 폴란드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PGE는 이미 폴란드 전역에 걸쳐 약 600만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PGE가 공급하는 면적은 폴란드 전체 면적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PGE는 폴란드에서 가장 큰 열 생산업체로 열병합발전을 통해 열을 공급하는 시장의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에너지 전환의 리더이자 지역 최초의 유틸리티 중 하나로서 PGE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climate neutrality)이라는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PGE는 폴란드의 녹색 에너지 리더이자 발트해의 최대 투자자로, PGE 계획에는 국내 최대 투자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포함되어 있으며, 4년 후에는 처음으로 전력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PGE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용량은 2040년까지 최소 6.5GW에 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3社는 빠른시간 내에 안정적이고 깨끗하며 저렴한 전기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예상되는 투자 비용과 운영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폴란드의 원전에 대한 투자는 폴란드 기업들이 신기술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전력 공급 및 관련 기업들로부터의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폴란드를 위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퐁트누프 원전 건설에 대한 폴란드와 한국 간 잠재적 협력은 폴란드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의 상호 비즈니스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한-폴 원전협력 프로젝트 개요 및 의의**

한국형 APR1400 원전, 폴란드 수출 신호탄 터졌다

- 한-폴 원전협력 관련 산업부 - 폴 국유재산부간 양해각서 및 기업간 협력의향서 체결 -

① '09년 바라카 이후 13년만에 두 번째 원전노형 수출 계기

② 한국 APR1400의 경제성 · 안전성 확인

③ 국내 원전생태계 복원과 활력 제고에 큰 기여

④ 양국간 원전 협력을 토대로 산업 · 경제 협력 본격화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0.31일(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야체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 **폴란드 퐁트누프**(Pątnów) **지역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와 산업부-폴 국유재산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힘

□ 협력의향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폴란드 민간발전사 ZE PAK***,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 PGE**** 등 **양국 3개 기업 CEO가 체결**하였으며,

* Zespół Elektrowni Pątnów-Adamów-Konin ** Polska Grupa Energetyczna

○ **3개社**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바르샤바 서쪽 240km)에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MOU는 **산업부 장관**과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이 체결**하였으며,

○ 양국 기업이 추진하는 **퐁트누프 원전 프로젝트를 양부처가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금번 기업간 협력**은 「폴란드 에너지정책 2040」에 포함된 **기존 폴란드 정부주도**의 원전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새롭게 추진**되는 것임

< 산업부 - 폴 국유재산부간 양해각서 및 기업간 협력의향서 체결식 개요>

◈ **(일시/장소)** 10.31(월) 17:30~18:00 / 더플라자 호텔(서울)

◈ **(체결주체)** 산업부 - 폴 국유재산부간 MOU: 이창양 산업부장관-야체크 사신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LOI: 황주호 한수원 사장 - 피오트르 보즈니 ZE PAK 사장 - 보이치에흐 동브로프스키 PGE 사장

◈ **(주요내용)** 폴란드 퐁트누프(Patnow) 부지에 APR1400을 활용한 원전 개발계획 수립 및 지원

□ 동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원전 수출 의지와 정책이 뒷받침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폴 원전협력 논의 진전을 위해 지난 6월 NATO 정상회의 시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에게 **APR1400 홍보 책자를 전달**하면서, **원전수출 지원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 **산업부 장관도 같은 시기에 폴란드를 직접 방문**하여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등 원전 수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음

○ 그 결과, **폴란드 측은 8월부터 협력의사를 타진**하였고 양국 부처 및 기업들이 수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2개월만에 LOI와 MOU를 체결**하게 되었음

□ 한-폴 기업간 LOI와 산업부 - 폴란드 국유재산부간 MOU 체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① '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에 두 번째 원전 노형 수출의 물꼬**를 텄고, **APR1400의 우수성*을 확인**하였음

* ('17.11) 유럽사업자요건(EUR) 취득, ('19.8)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인증 취득
* ($/kW, '21 WNA 공개기준) 한국(3,571), 중국(4,174), 미국(5,833), 러시아(6,250), 프랑스(7,931)

- 또한, 최종 계약시 한국은 '09년 아시아(UAE), '22년 아프리카(이집트)에 이어 **유럽 원전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②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과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최종 계약시, 지난 8월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에 이어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전업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임

③ 한-폴간 **산업·경제 분야까지도 협력의 수준과 깊이를 넓히는 계기**가 됨

- **양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번 원전 협력을 토대로 방산, 배터리,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장**할 예정임

□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산업부 - 폴란드 국유재산부간 MOU와 기업간 LOI 체결을 계기로 폴란드와 긴밀히 협력하게 되어 **상호 Win-Win할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언급하고,

○ “**'30년까지 원전수출 10기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번 **엘다바 수출에 이어 폴란드 협력사업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양국 기업은 금년 말까지** 소요예산, 자금조달, 예상 공정 등이 담긴 **개발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임**

참고 2 | **한-폴 원전협력 프로젝트 개요 및 의의 요약**

한-폴 원전협력 프로젝트 개요



노형 한국 APR1400 (1.4GW)

부지 폴란드 퐁트누프 (Pątnów)
* 바르샤바 서쪽 240km

참여 (폴) ZE PAK (폴란드 최대 민간발전사)
PGE (폴란드 최대 전력공기업)
(한) 한국수력원자력

계획 기본계획 수립
* 자금조달, 소요예산, 예상 공정표 등 포함

한-폴 원전 협력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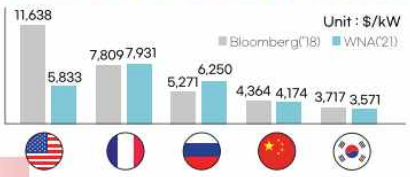
1 '09년 바라카 이후 13년만에 두번째 원전노형 수출 계기

- 폴란드에 APR1400 기반의 원전개발 계획 추진
- 최초로 유럽대륙 원전시장에 진출할 교두보 개척



2 한국 APR1400의 경제성·안전성 확인

- 40여년 간 국내외 원전의 안정적 운영 경험 인정
- 계획된 공기와 예산 준수(On-time, On-budget)



3 국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활력 제고에 큰 기여

- 3조원 규모의 엘다바 프로젝트에 이어 대규모 일감 공급 가능
- 원전 노형, 기자재, O&M 등 밸류체인 전분야 활성화
- 폴란드 등 해외 원전 기자재 시장 진출 확대

4 양국간 원전협력을 토대로 산업·경제 협력 본격화

- 방산에 이어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 배터리, 수소·전기차 등 분야로 협력 확대



참고 3 한-폴 공동 보도자료(영문)

ZE PAK, PGE and KHNP signed a letter of intent regarding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a nuclear power plant at the Pątnów site

Polish Ministry of State Assets, Korea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olish energy companies ZE PAK and PGE, Korea Hydro & Nuclear Power (KHNP) have announced that a letter of intent regarding the development plan of a nuclear power plant at the Pątnów site and an MOU between the ministries were concluded.

The CEOs of the three companies of the two countries, Polish private energy group ZE PAK, Polish state-owned public power company PGE and KHNP signed the letter of intent, of which the main point is the three companies intend to push ahead with the development plan of a nuclear power plant in Pątnów location in Poland based on APR1400 technology.

Polish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State Assets and Korean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igned MOU to spare no effort to provide support for the Pątnów project promoted by the companies with cooperation in nuclear energy, and enhance cooperation with sharing information on a regular basis.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is assessment of the possibilities of developing cooperation on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in Pątnów location in order to provide Poles with cheap and clean energy. The project is intended to support the independence and stability of the Polish energy system - simply to be a stable source of cheap and clean energy. Ultimately, the project should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Polish economy, create new investment opportunities in Poland, but above all, provide Polish households with cheap and clean energy at a stable price for the next 60 years. Potential cooperation is intended only as a supplement to the Polish government's strategic, nuclear power program included in the "Poland's Energy Policy until 2040".

ZE PAK and PGE opted for potential cooperation with KHNP because of safe, operating for over 40 years and effective Korean nuclear reactor technology. Currently, KHNP is the third largest nuclear power plants operator in the world

and has recently successfully completed one of the world's largest investments on time and on budget - the nuclear power plant in the United Arab Emirates in Barakah. The power plant consists of 4 blocks of 1,400 MW of capacity each, which means 5,600 MW of cheap, clean and stable energy providing more than ¼ of the UAE's electricity demand.

The parties intend to jointly prepare a plan to develop the nuclear power plant based on Korea's APR1400 technology. In particular, the parties intend to perform preliminary analysis of geotechnical, seism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develop an estimated budget for the preparatory work, construction phase and production phase along with the proposed project financing model, as well as create a variant project implementation schedule along with the definition of key stages affecting the potential project implementation. The parties intend to prepare a preliminary development plan for the nuclear power plant at the Pątnów site by the end of 2022.

Regarding the project, each party has made assessment as follows:

"We need sources of cheap and stable energy in Poland. Nuclear energy is essential in Polish conditions, especially in the current geopolitical situation. The initiative of ZE PAK and PGE is extremely interesting because it fulfils the strategic goals of Poland and Poles - cheap energy and energy independence. According to Poland's Energy Policy until 2040 adopted by Polish government in 2021, Pątnów is one of the potential locations for a nuclear power plant in Poland. The construc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in Pątnów could be a support for Poland's nuclear energy program, which is crucial for us a national perspective. We welcome the information that ZE PAK and PGE have entered into talks with KHNP, which will further strengthen relations between Poland and South Korea. Certainly, this would be the next step in strengthening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our countries and a great opportunity for knowledge and experience transfer." said Mr. Jacek Sasin, the Polish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State Assets.

"First, the project is evaluated as an achievement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s firm determination and policy to export nuclear plants. For Korea, the project has reopened the gate for nuclear power plant exports in 13 years since the export to the UAE in 2009 while it validates the excellence of the APR1400. Also, once the final contract is made, we anticipate that it will greatly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domestic nuclear industry by providing the nuclear industry struggling with lack of business with work. Moreover, the project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e level and depth of cooperation in the industrial and economic sectors between our two countries to be broadened. Amidst the recent instabilities in the global supply chain network, we plan on expanding this cooperation in nuclear power to various areas such as the defense industry, batteries, hydrogen and electric vehicles. The conclusion of the MOU and the LOI between the companies has laid the foundation for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Poland that leads to a mutual benefit and win-win situation." said Mr. Chang-Yang Lee, Korean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HNP is a safe and reliable global energy leader with over 50 years of experience in the construction and 40 years of experience in th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With unparalleled expertise and capabilities, KHNP is a trusted supplier for new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We currently have 24 units of nuclear power plants in operation and 6 units under construction in Korea and the UAE. The Korean APR1400 is a Generation III+ reactor which offers the most advanced passive safety and security features, and the request for cooperation by ZE PAK reaffirms Korea's excellent technology and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nuclear power industry to the world. I strongly believe that potential cooperation between Poland and Korea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further solidifying the strong partner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said Dr. Jooho Whang, President & CEO of KHNP.

"Our goal is to provide Poles with cheap and clean energy. There is no doubt that nuclear power is a source of that. Our Pątnów location seems to be ideal for the implementation of a nuclear energy project, hence our idea to create a development plan for such a project. We are glad that today, as ZE PAK, we can announce a partnership with the South Korean company KHNP, the world leader in nuclear technologies, and with PGE, the largest power company in Poland. We have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experience and passion of our power engineers in the region for new challenges. We are an energy company in transformation that is gradually moving away from lignite-based energy production and developing zero-emission energy sources. We have fantastic and experienced people in the energy industry, whom we want to provide the opportunity to continue working in the region. Investing in nuclear power is an opportunity for Poland, for the region, and most of all for us Poles - because nuclear power means stable, clean and cheap energy for Polish businesses and households. It is also a development impulse for a number of potential Polish suppliers, work for thousands of people and the transfer of highly advanced technologies and knowledge. It is also a powerful investment in the Polish economy and significant tax revenues for the

country and the region" said Mr. Zygmunt Solorz, ZE PAK Chairman of the Supervisory Board and main shareholder.

"Poland needs to invest in large-scale nuclear power in order to replace coal-based conventional energy in future. Together with investments in RES, this will be the basis of our energy security.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given the global energy crisis and fossil fuel market constraints caused by Russian invasion on Ukraine" – says Mr Wojciech Dąbrowski, President of the Management Board at PGE Polska Grupa Energetyczna –"As the largest energy company in Poland, we are leading the domestic energy transition. We already supply electricity to nearly 6 million customers throughout Poland. Our distribution area covers almost 40% of Poland's area. At the same time, we are the largest heat producer in Poland, holding approx. 25% in market of heat from co-generation. Being the leader of the Poland's energy transformation, as one of the first utilities in the region we announced our goal of climate neutrality by 2050. We are the leader in green energy in Poland and the largest investor in the Baltic Sea, and our plans include the largest domestic investments in offshore wind farms, which will generate first electricity in 4 years. By 2040 the capacity of PGE's offshore wind farms will reach at least 6.5 GW" – adds Mr Wojciech Dąbrowski.

The Parties will make every effort to optimize the estimated investment and operating expenditures of the investment, with a view to delivering stable, clean and cheap electricity in an efficient time.
The potential investment in nuclear power plant in Poland will provide Polish companies with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a broad supply chain based on new technologies. It is also possible support for Poland in terms of tax stream, both at the level of the company producing electricity, and - through induced effects - at the level of other companies. Potential cooperation between Poland and South Korea in the construc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in Pątnów will increase Poland's energy independence and may create great opportunities for sharing knowledge and experience as well as developing mutual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참고 4 기업간 협력합의서(LOI) 및 정부간 MOU 체결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2.10.31(월) 17:30/ 더 플라자 호텔 4층

□ 참석자

○ **한 국** : 산업부 장관, 한수원 사장

○ **폴란드** : 사신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솔로쉬 ZE PAK 회장, 동브로프스키 PGE 사장

□ 주요내용

① 폴란드 신규 원전사업 **기업간*** **협력의향서**(LOI) **체결**

* 서명사 : 한수원 - ZE PAK(폴란드 민간발전사) - PGE(폴란드 전력공사)

② (한) **산업부** - (폴) **국유재산부** 간 **원전협력 MOU 체결**

□ 세부 일정

※ 한-폴 언론사 질의 응답(~18:40)까지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7:30 ~ 17:35	5분	**참석자 소개**	**메이플홀**
17:35 ~ 17:55	20분	**인사 말씀**	
17:55 ~ 18:00	5분	**서명식 및 사진촬영**	
18:00 ~ 18:40	40분	**언론 질의 응답**	**오키드홀**

* 한-폴 순차통역, 질의 응답 이후 만찬 등 진행 예정